



글 | 이 덕 주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oliblove@hanmail.net

학교도서관 ‘ 짹 ’ 맞추기,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

학교도서관의 정책부서와 협력부서에 대한 고민,
 문화 행정이나? 교육 장학이나?

한 방송사에서 수요일 밤에 하는 ‘ 짹 ’이라는 인기프로그램을 보면 남자 1호는 여자 1호를 좋아하는데 남자 1호의 끈질긴 구애를 받는 여자 1호는 남자 7호를 좋아하고, 그런가하면 남자 7호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여자 1호에는 관심이 없고 여자 2호를 좋아하는 엇갈린 사랑의 작대기를 매주 만나게 된다.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다보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부서를 어느 파트에 둘 것인가를 갖고 늘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짹 맞추기 프로그램의 엇갈린 사랑의 작대기가 늘 떠오른다. ‘ 짹 ’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첫인상”, “호감”을 갖고 접근하다가 서로 “공감대”를 맞추어 보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사랑의 반전과 밀고 당기기를 통해 겨우 한 두 쌍이 짹을 맞추게 된다.

현재 전체 도서관정책과 행정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정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각 행정부서로 도서관정책이 파급력있게 퍼져 나간다.

그러나 알다시피 학교도서관을 관장하는 각 시·도교육청에 오면 이런 정책의 기조와 힘은 특히 학교도서관 쪽에서는 발휘되지 못한다. 처음에는 학교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고 또 각 시·도교육청으로 한 단계 더 건너가서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인가도 싶었지만, 같은 시·도교육청 산하이면서도 공공도서관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계획, 지침, 장기비전 등이 학교도서관 분야로 오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것에는 실효성있는 장기적인 도서관 확충 인력 비전에서부터 사소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연수프로그램이나 도서관정책포럼, 전국도서관대회 공문조차 일선 학교도서관에서는 접하거나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만큼이라도 학교도서관을 챙기는 행정력과 정책 계획을 수립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쪽만의 생각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입장에서도 같은 도서관이고 사서로서 도서관 행정이 굳이 공공과 학교를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일관성있는 지원과 협력으로 상호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그래서 도서관정책이 앞서간다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평생학습과 내에 학교도서관

관 업무가 배치되어 있어서 학교도서관 업무가 같은 사서 출신의 행정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중등교육과에 학교도서관 업무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한때 일반 행정사무관이 사서주무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도서관의 정책과 행정이 진행된 적이 있다. 일반 문화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나름대로 교사 출신의 장학사들보다 추진력있게 도서관 문화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도서관 행정부서의 한계는 지금 학교도서관의 주요 이슈인 리모델링이나 관리보다는 교육적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도서관활용수업' 연구 발표회에 장학사가 아닌 정책 책임자인 일반사무관이 도움말을 한다거나 정책 담당자들이 학교 근무경력이나 교사문화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계약직 사서에게 교사에 대한 도서관운영컨설팅을 하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것은 사소해 보여도 일반교사들의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자적 자존심을 건드려 도서관문화가 교직사회에 침투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행정지침보다 도서관 프로젝트 학습,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연수와 장학에 의한 설득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철저히 장학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서들끼리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교육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학교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교사출신의 장학사들에 의해서 교원정책,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적 관점으로 보는 인

재정책실의 창의인재정책관 산하의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사출신의 담당자가 독서교육과 함께 학교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다.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담당 연구사가 거의 해마다 교체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평생학습부서가 아니라 학교혁신과의 문예체도서관팀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사출신의 장학관이 책임자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도서관에서 파견된 주무관이 실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곳도 담당 장학관의 인사교체가 문제다. 이런 교육과 장학파트에서는 잦은 인사교체 뿐 아니라 여러 난관을 뚫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애정어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추진력이 약하다. 방향은 맞지만 내용이 빈곤하다. 이어서 학교도서관은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 *

학교도서관은 철저히 장학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서들끼리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교육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학교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교사출신의 장학사들에 의해서 교원정책,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전담 장학사를 선발하여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서교사가 200명이 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출신의 장학사를 임명하여 학교도서관의 장학을 펼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정책의 짝맞춤은 엇갈리는 사랑의 작

대기이지만 교육과 장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아울러 평생교육부서의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인문리선언을 공유하는 사서동지들과의 끈끈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같은 동문임에도, 같은 도서관인, 같은 교육청 직원임에도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는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 사랑의 작대기를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05.10